고용노동부

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후,

근무시간, 여가 관련 업종의 매출 등 변화 빅데이터 분석



빅데이터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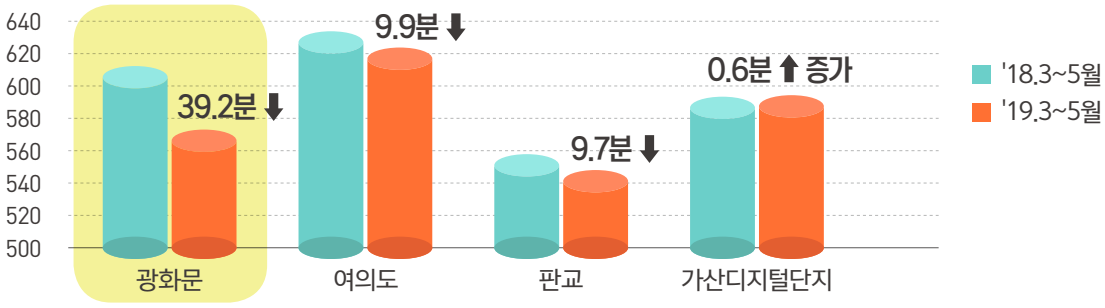
- 휴대폰과 기지국이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신호 정보(KT)
- 특정 상권에 위치한 주요 업종 소비 데이터 분석(BC카드)

1. 근무시간 감소

* '18년 3~5월(주52시간제 시행 前) vs '19년 3~5월(300인이상 기업 주52시간제 시행 後) 비교

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**직장인 근무시간은 4개 지역**(광화문·여의도·판교·가산디지털단지) **평균 13.5분 감소**한 것으로 나타났다. 주52시간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**대기업이 다수 위치**한 **광화문**의 근무시간이 **39.2분 감소**하여 **가장 큰 폭으로 감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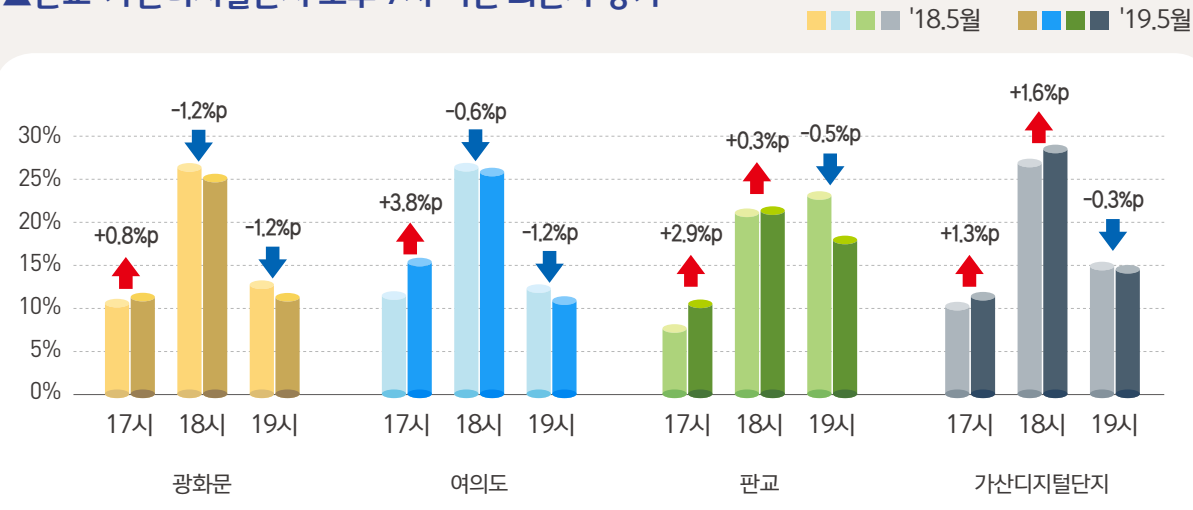
다만, **주52시간제가 시행되지 않은** 중소기업들이 밀집해있는 **가산디지털단지**의 경우 **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으**로 나타남(0.6분 증가)



2. 퇴근시간이 당겨지는 경향

* '18년 5월(주52시간제 시행 前) vs '19년 5월(300인이상 기업 주52시간제 시행 後) 비교

▲광화문 오후 6시 이후 퇴근자 감소, ▲여의도 오후 5시대 퇴근자 증가, ▲판교·가산디지털단지 오후 7시 이전 퇴근자 증가



3. 여가 업종 매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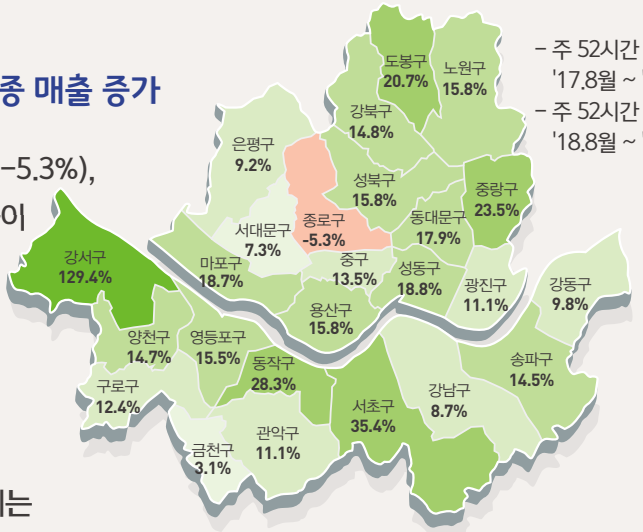
* '17.8월~'18.5월(주52시간제 시행 前) vs
'18.8월~'19.5월(300인이상 기업 주52시간제 시행 後)

전체 업종의 이용액은 9.2% 증가한 반면, 여가, 문화, 자기계발 관련 업종*의 경우 주 52시간 시행 이전에 비해 시행 이후 이용액이 평균 18.3% 증가

* ①영화·공연 업종, ②스포츠레저(볼링장, 헬스클럽, 수영장 등), ③여행, ④학원(외국어학원, 예체능학원 등), ⑤골프 업종의 오프라인 매출 기준

서울시 대부분 지역에서 여가·문화 관련 업종 매출 증가

- 지역별로는 직장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종로구(-5.3%), 금천구(+3.1%) 등은 문화·여가 관련 업종 매출이 감소하거나 소폭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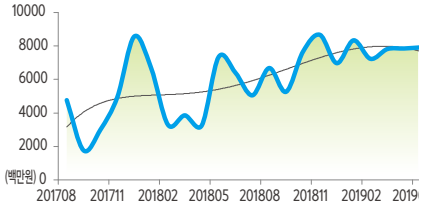


- 주 52시간 시행 전 : '17.8월 ~ '18.5월
- 주 52시간 시행 후 : '18.8월 ~ '19.5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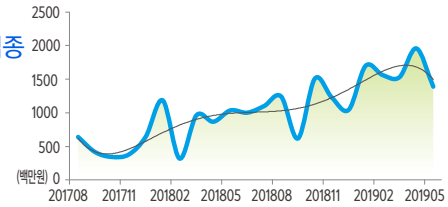
- 광화문·여의도·판교·가산디지털단지의 경우에는 스포츠레저, 학원, 여행 등 업종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

* 강서구는 항공 관련 업체 多, 여행업종 252.2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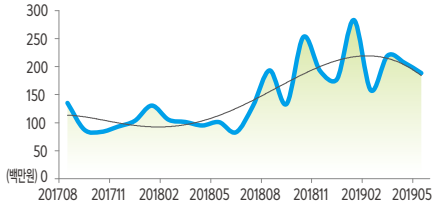
광화문 여행 업종 56.5% 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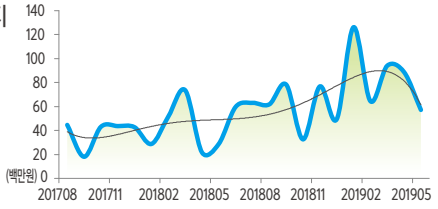
여의도 스포츠레저 업종 103.5% ↑



판교 골프 업종 93.8% 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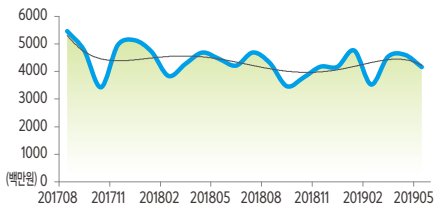


가산디지털단지 학원 업종 84.0% 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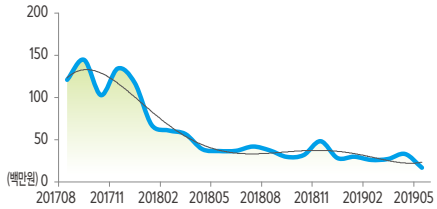


- 반면, 유흥 업종*, 저녁급식(위탁급식) 업종은 하락 * 주점, 노래방, 유흥주점, 칵테일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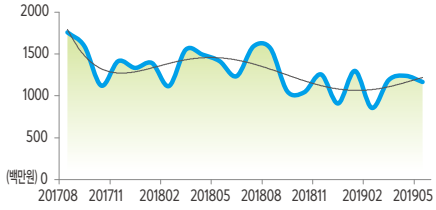
광화문 유흥 업종 9.3% ↓



여의도 저녁급식 (위탁급식) 64.8% ↓



판교 유흥 업종 18.4% ↓



광화문 저녁급식 (위탁급식) 11.0% ↓

